



민주노총은 무죄다! 노동법개악 문재인정권이 유죄!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잡아갔습니다!

점차 노동법 개악 정세가 다시 다가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6월 21일 국회 앞 투쟁을 빌미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먼저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존중’을 말하던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 노조법 개악에 맞서 올해 3~4월에 국회 앞에서 가열찬 투쟁을 벌였습니다.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그 와중에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80여일만에 일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일한 적도 별로 없지만, 이번에는 노동법 개악까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정권과 여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까지도 노동법 개악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잠시 멈춰있던 노동법 개악이 다시 속도를 낼 상황입니다.

구속동지
구출하자
민주노총



전체 노동에 대한 정면 도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100만 조합원의 대표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며, 노동법 개악을 반대해온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투쟁은 불가피했습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는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손발을 다 묶어버릴 노조법 개악은 꼭 저지해야 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 투쟁을 진두지휘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다는 것은 전체 노동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총파업투쟁은 가둘 수 없다!

정권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가뒀을지 몰라도, 총파업 투쟁은 가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총파업 투쟁은 더 강력하게 조직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총파업이 7월 3일 시작되고, 금속노조는 7월 18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6월말, 7월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이 벌어집니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은 7, 8월 총파업 투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부는 4월부터 지속적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진짜 한판 붙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총파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을 뚫어내고, 반드시 노동법 개악 끝장냅시다!

**투쟁을
구속말라**

민주노총